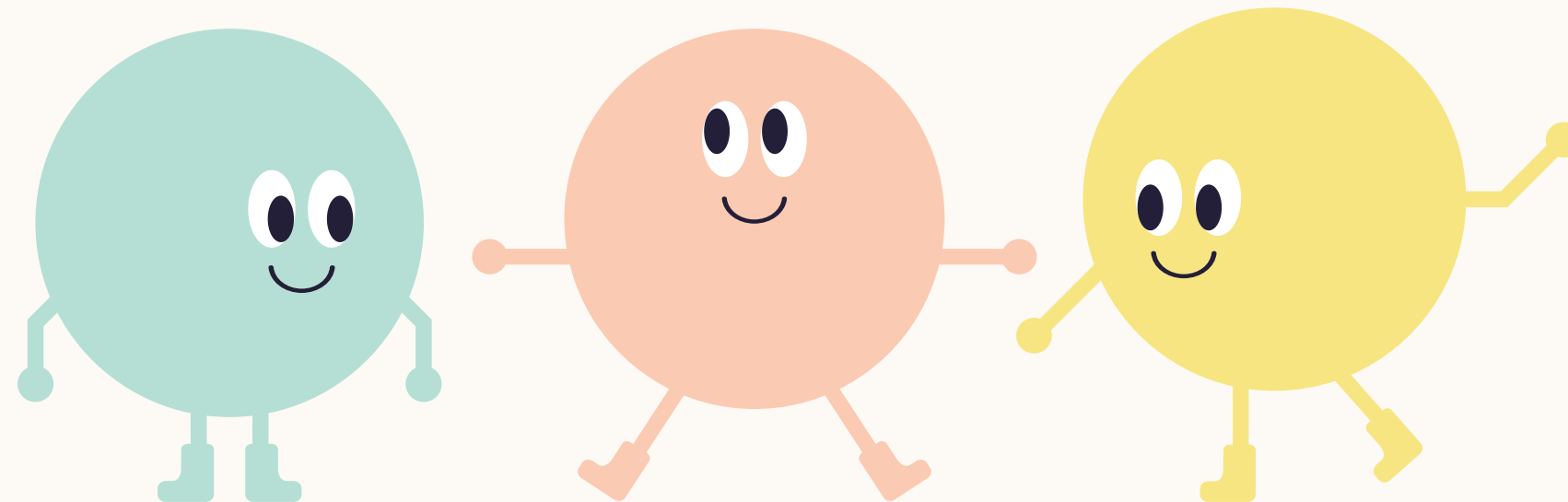


GROUP BOOKIT 2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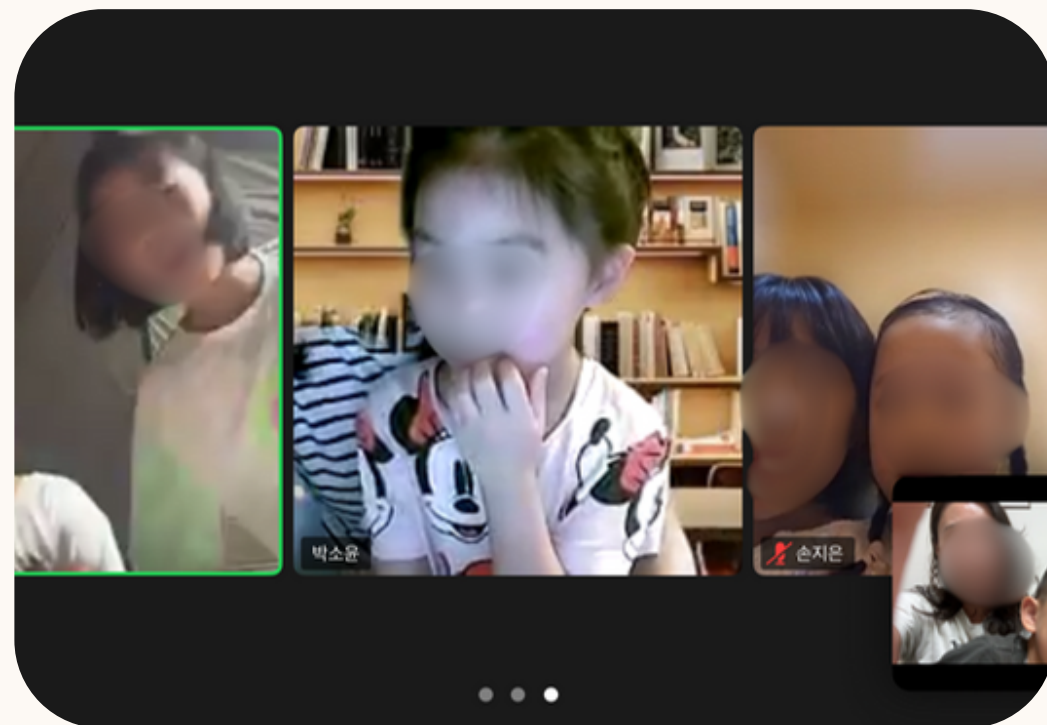
‘심표’의 아이들 1회차 활동후기

2025년 9월 27일 Zoom모임
참석자 : 윤서, 서연, 아운, 채영, 강희, 정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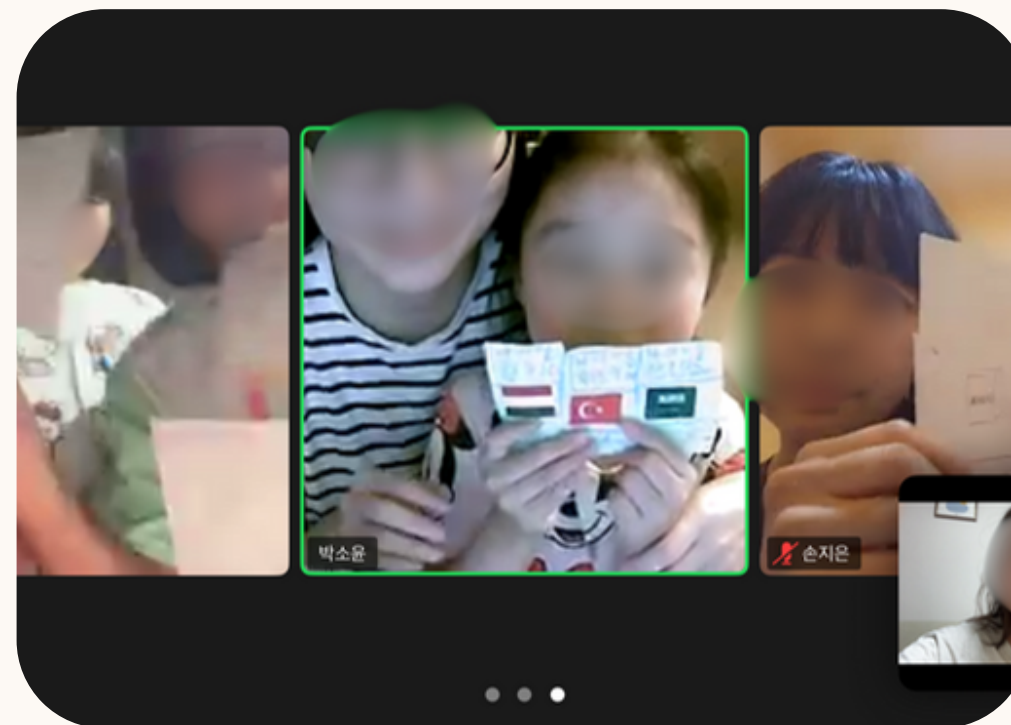
모임 개요

1. 진행 방식 : ZOOM온라인 모임
2. 활동 흐름



1. 본인 및 책 소개

온라인으로 처음 만나는 아이들,
조금은 쑥스럽지만 자기소개부터
시작하며 분위기를 풀어요.



2. 각자 활동 후 발표

책을 읽고 느낀점과 배운점, 엄마와
함께 한 활동지를 발표했어요.



3. 전체 소감 & 마무리

활동과 모임에 대한 소감을 공유하며
마무리했어요.

윤서&서연이 후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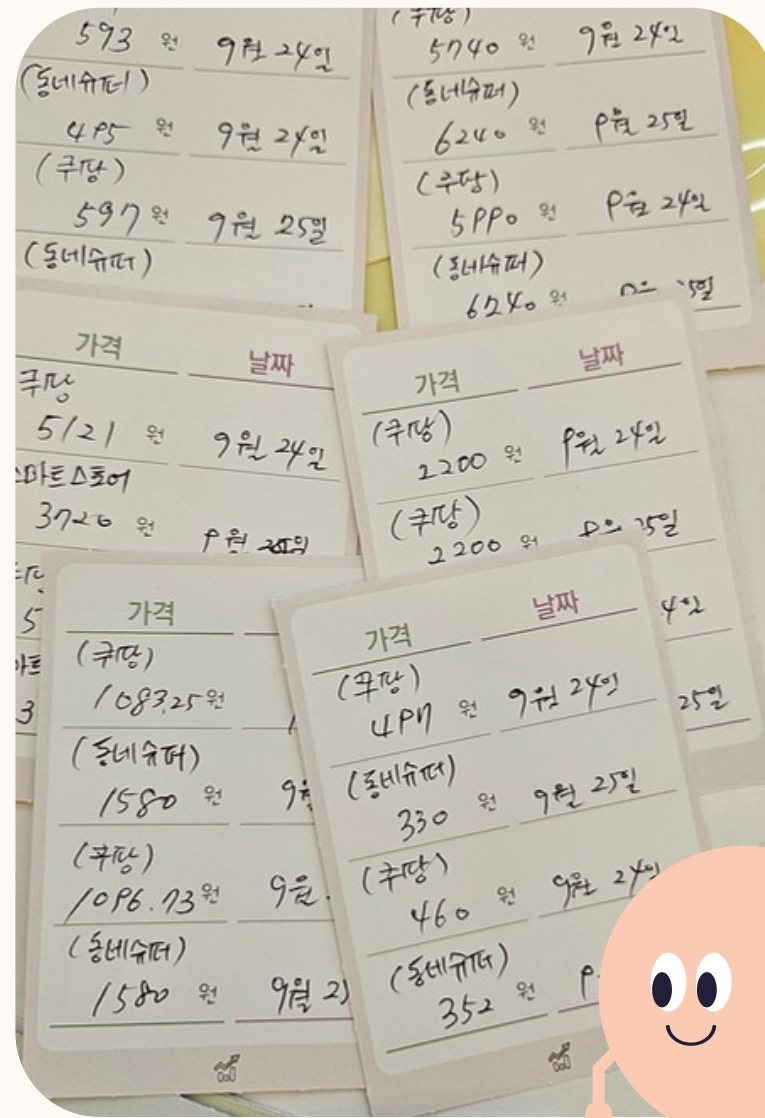
✓ 윤서(10살)

이자의 뜻과 환율의 뜻을 알게되었어요. 환율은 매일 매일 바뀌어서 환율이 낮을때 미국으로 여행가고 싶어요.
경제 핏줄 화폐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물물교환부터 물품화폐, 금속화폐에서 지폐까지 변화하는 과정을 알게되었어요!

✓ 서연(9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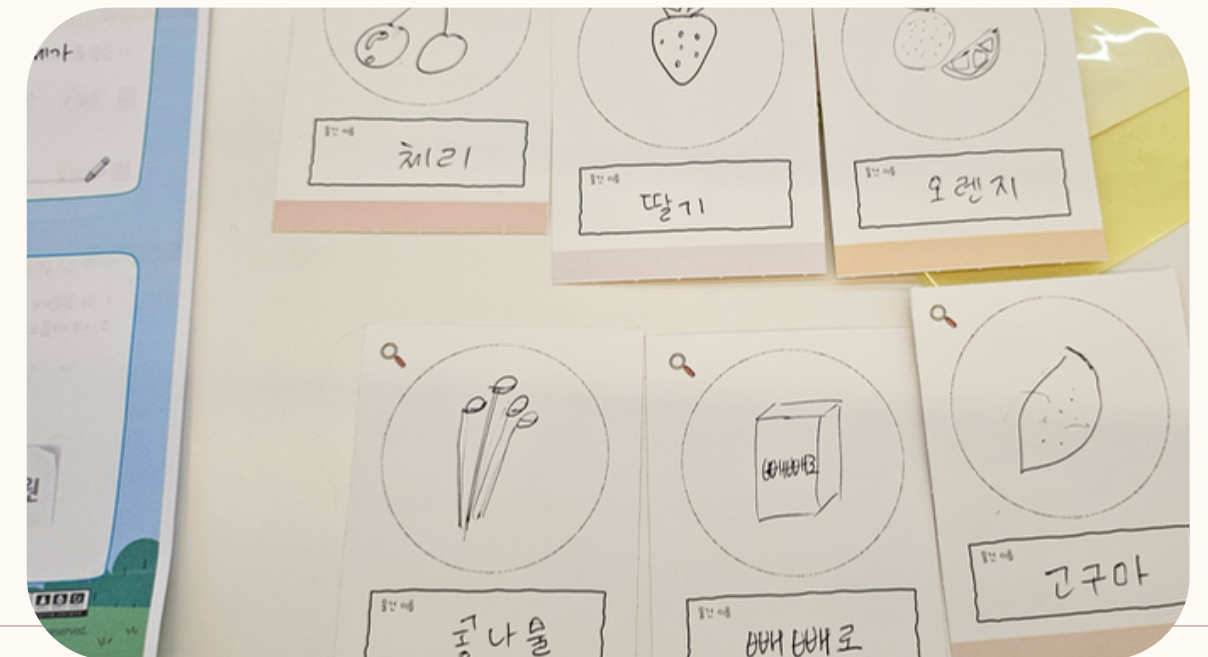
물물 교환을 하는 이야기를 보고 집에 있는 책과 연계독서를 해보았어요. 참 똑똑한 사회씨 책에 있는 “은행에 간 놀부와 흥부” 책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고 담보를 파는걸 알게되었어요. 열심히 저축하고 기업에 투자하는걸 배웠는데 엄마가 미국주식을 하고 있어서 더 관심 가져야겠어요!

아윤이 후기



✓ 아윤(7살)

돈이 생기기 전 물물교환을 하던때는 불편했을것같아요.
서로 원하는게 다르고 소 한마리와 쥐 한마리를 교환하는건
안될것같아요. 통화는 전화통화할때 통화만 있는줄 알았는데
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.
돈으로 살 수 있는것과 없는 것에 대해 알고 싶어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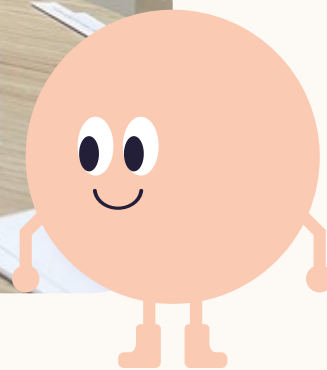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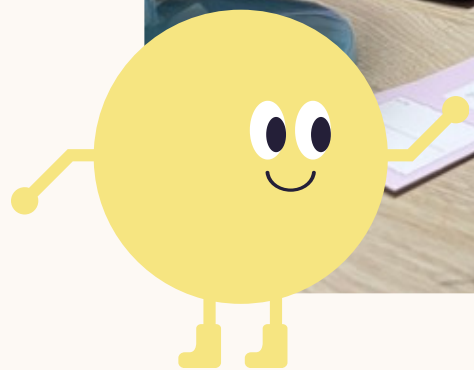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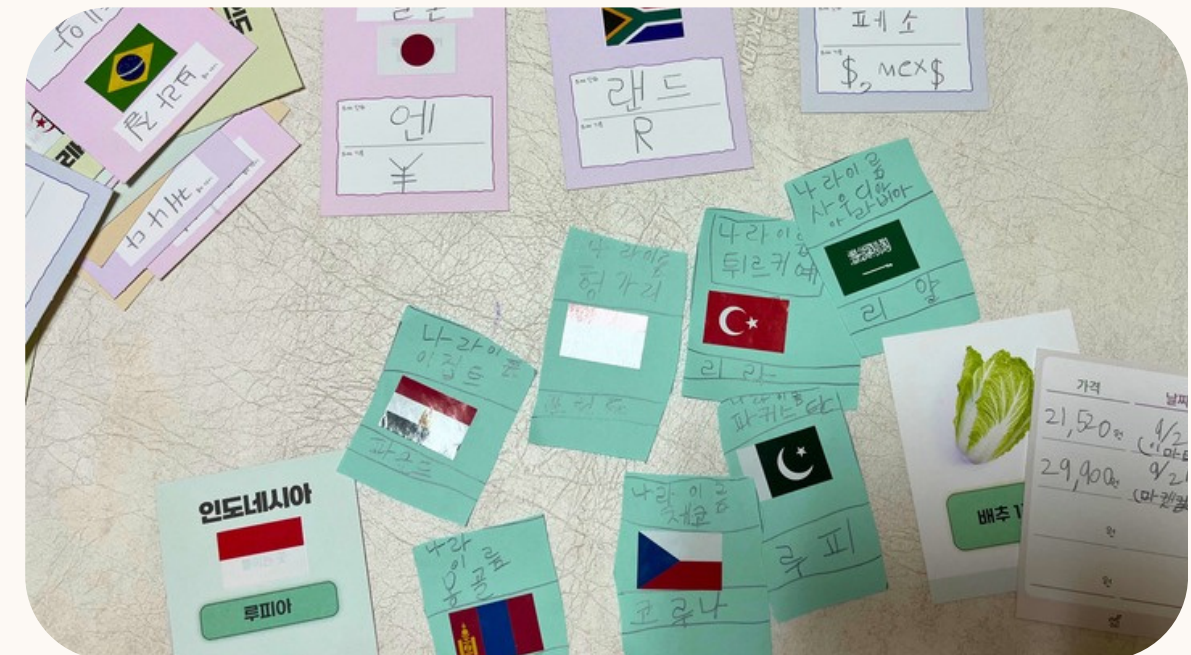


채영이 후기



✓ 채영(7살)

저축과 기부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. 나라마다 쓰는 돈이 다르다는 것과 물건을 언제 어디서 사는지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. 돈의 가치가 변한다는 게 신기했어요.



강희&정원이 후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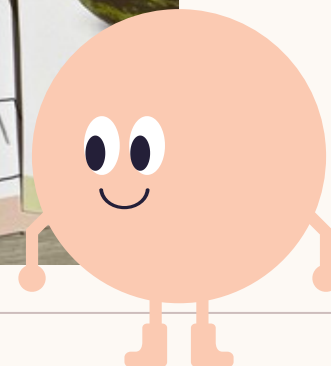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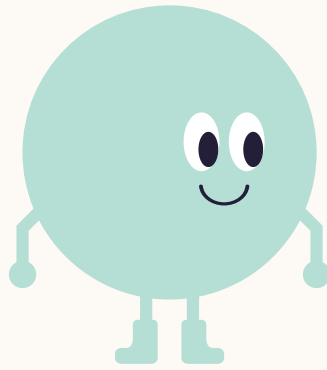
✓ 강희(7살)

나라별로 돈 모양이 다르고 기호도 다르다는 게 재미있었어요. 활동지가 다 떨어져서 직접 카드를 만들어서 놀았어요. 엄마랑 환율을 적는 사이에도 가격이 바뀌어서 신기했고, 매일매일 확인해보고 싶어졌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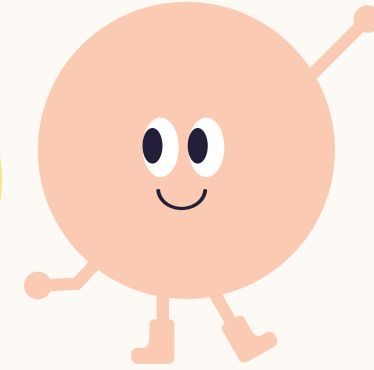
✓ 정원(6살)

화면으로 누나들 얼굴이랑 목소리를 들으니 재미있었어요.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랑 야채가 얼마인지 직접 찾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. 이제 마트에 가면 사과나 당근 가격을 확인해 보곤 해요.





첫번째 모임을 마치며



오늘은 아이와 함께 줌으로 참여한 첫 독서 금융교육 모임이었습니다.
책 속 이야기와 활동지를 통해 ‘돈’이 단순히 쓰고 버리는 종이기가 아니라,
시대마다 다른 의미와 약속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.

특히 아이들이 스스로 활동지를 다 쓰고도 카드를 더 만들어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,
호기심이 이렇게 학습으로 이어지는구나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.
또, 평소에 장난감 가격만 궁금해하던 아이가 과일과 야채 값까지 살펴보는 걸 보며
생활 속에서 경제 감각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요.

부모인 저에게도 이번 시간은 ‘돈의 가치’와 ‘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아이에게
어떤 시선을 심어줄까’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.
이번에는 시간상의 이유로 온라인으로 만났지만, 다음 모임은
직접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오프라인이라 더 기대가 됩니다.

앞으로도 모임을 통해 아이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
삶 속에서 경제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^^